

삼성 · LGD, 디스플레이 신기술 전시

10월26-28일 국제전시 ... 삼성은 투명LCD 및 OSI 10.1인치 패널 공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국제 디스플레이 전시에 참가한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10월26일부터 3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FPD(Flat Panel Display) 인터내셔널 2011>에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산화물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10.1인치 패널을 비롯해 스피커 기능을 내장한 일체형 패널, 전기 습윤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을 적용한 태블릿 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특히, 산화물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OSI(Oxide Semiconductor Integration) 10.1인치 패널은 전자의 이동 속도가 기존 실리콘 기반 박막트랜지스터보다 10배 이상 빨라 전력소비가 낮고 300dpi의 고해상도를 구현한다.

또 2011년 초부터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투명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이용해 냉장고의 전면 유리에 46인치 투명 LCD를 적용한 제품과 22인치 포터블 투명 LCD TV 패널 등도 전시한다.

LG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AH-IPS(Advanced High Performance In-Plane Switching)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차세대 3D 기술로 내세우고 있는 필름패턴편광(FPR) 3D 기술도 중점 홍보하며, 47인치 FPR 3D TV와 46인치 셔터안경 방식 3D TV를 비교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밖에 테두리 두께가 가장 얇은 퍼블릭 디스플레이용 55인치 LCD패널 9개를 이어붙인 멀티비전과, 다양한 저전력 소비 제품도 전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6>